

전남 동부권

여수산단 정전사고 등에 유독가스 배출돼도 규제장치 없어 환경오염 무방비

폐가스 소각로 오염원 측정 안돼... 대책 마련 시급

막대한 오염물질을 배출하고서도 환경법상 사각지대에 있었던 여수산단의 '플레어 스택'(flare stack·폐가스 소각로)에 대한 규제장치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특히 일부 공장은 수년 동안 정전 등의 비상시에 불완전 연소로 엄청난 양의 유독가스를 '플레어 스택'을 통해 분출(사진)했지만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아 전남도의 환경정책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실제 A공장은 최근 3년간 7차례나 정전 등의 비상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엄청난 양의 유독가스를 배출해 막대한 환경 피해를 입혔으나 한 장짜리 형식적인 '개선 보고서'만 제출하는 것에 그쳤다.



강력한 행정처리를 받아야 한다"고 전남도를 질타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플레어 스택'에 대해 현행법상 마땅한 규제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관리감독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대해 박준영 도지사는 환경부에 제도개선 의견제출과 함께 도 자체적으로 유독 가스 배출량을 직접 분석해 관리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우리동네 땅 밟고 일주하기 3곳의 둘레길을 개발했다.

여수 여천동 주민과 유관단체 회원들이 지난 23일 '우리 동네 땅 밟고 동(洞) 일주하기' 둘레길을 걷고 있다. 여천동은 봄, 여름, 가을 테마로 관내 (여수시 제공)

곡성 상업농 육성 '박사클럽' 창립

농업경영기술 컨설팅 등 지원

곡성군 지역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상업농 육성을 위해 농업관련 '박사(Doctor)'들이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수행한다.

병준 소장(이화박사) 등 11명이 가입했다. 앞으로 '박사 클럽'은 정기적인 모임과 토론회를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역 농업의 방향과 정책을 입안하고 ▲선진 농업정책을 위한 각종 시스템 연구·개발 ▲부농·기농농 육성을 위한 농업 경영기술 컨설팅 지원 ▲농생명 분야 정보교류와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전주·김제 예술회관 꿈수 객석

"500석 이상팬 무대예술 전문인 배치" 공연법 피해 축소

도내 일부 지자체가 일정규모의 공연장 객석을 갖출 경우 '무대예술 전문인'을 배치하게 돼 있는 '공연법'을 피하기 위해 객석을 축소하는 등 편법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 3명을 배치하도록 돼 있어 김제시와 전주 덕진구가 객석조정으로 법을 악용해 피해 간 것이다. 그러나 공연법에는 공연장에 객석이 설치되지 않아 그 수를 셀 수 없는 경우는 m당 객석 1개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인'을 배치하지 않은 것은 꿈수로 관람객의 안전을 생각지 않은 도를 넘는 행위이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12월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오페라 '리보덴' 공연중 화재가 발생해 관객과 직원 1800여 명과 예술의전당내 토월극장과 자유소극장 관객들이 긴급히 대피했으며 불이 커튼과 조명시설 등으로 번져 100억4000만원의 보수비용이 든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 경제자유구역청 본격 중화권 투자 유치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 중화권(中華圈) 투자유치에 시동을 걸었다. 군산시는 "25일부터 30일까지 국무총리실과 지식경제부, KOTRA 등 각 부처 관계자 16명으로 구성된 투자유치단이 중국 상하이와 칭다오, 마카오에서 새만금 투자유치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전주 한지문화 체험하세요

내달 5~8일 한지 패션쇼 등 한미당 축제 개막

전주 한지의 우수성과 다양한 쓰임새를 체험하고 산업화 가능성을 모색하는 '전주 한지(韓紙) 문화축제'가 5월 5~8일 전주시 한옥마을 일대에서 열린다.

전통한복, 웨딩드레스, 연주복, 액세서리를 공개한다. 6일에는 학생과 시민이 직접 만화나 영화,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의상을 만들어 입고 무대에 서는 코스튬플레이어 패션쇼가 이어진다.

전북

전북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개소



전북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개소

원광대 병원 첨단시스템 갖춰

전북지역 심뇌혈관 질환센터가 지난 22일 원광대학교 병원(병원장 정은택)에 문을 열었다. 센터는 심근경색증과 뇌졸중으로 대표되는 심뇌혈관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최고의 진료 시스템을 갖췄다.

심뇌혈관 질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심뇌혈관 질환 종합대책의 하나로 전국 9개 권역별로 지방대학 병원을 심뇌혈관 질환 응급치료, 조기재활 및 전문치료 거점병원으로 지정·육성에 심뇌혈관 질환 발생 시 신속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했다.

불확실한 세계 경제 경쟁력 갖기 기업 세미나

전주 상공회의소는 지난 20일 코아리베라호텔에서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관수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초청, '급변하는 대외환경과 기업의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며 "불확실성이 대두되고 있는 세계경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경쟁력을 키워야 하며 이를 위한 '시나리오 경영'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순천만 갈대길 거닐어 보세요

갈대·철새·갯벌 감상 총 16km 해안길 완성

순천만 해안길을 따라 걷는 도보길이 개설됐다. 순천시는 해룡면 외안마을에서 별랑면 응두마을까지 갈대와 철새, 갯벌을 감상하며 가족과 연인이 걸을 수 있는 해안길 '순천만 갈대길'(총길이 16km)을 완성했다.



특히 '순천만 갈대길'코스는 광활한 갯벌과 갈대숲을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웅산전망대에 올라서면 S자형 수로 등 순천만의 절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철새와 자연생태를 감상하며 해안길을 걷다 보면 종점지인 일출의 감상지 별랑 화포에 다다른다.

주말엔 다도해 1박2일 크루즈 여행

광양훼리·하나투어 맞물려

광양훼리(주)와 하나투어는 오는 30일부터 주말 1박2일 코스인 해상 크루즈 여행을 올린다. 25일 광양훼리(주)에 따르면 지난 19일 국토해양부로부터 '복합해상여객 운송사업면허'를 발급받아 주말 크루즈 여행을 준비중에 있다.



아침 광양에 도착해서 광양·순천 등을 관광한 후 토요일 저녁 주말 크루즈를 즐기고 일요일 저녁 일 본으로 돌아간다. 국내 관광객들 역시 남도의 유명 명승지 관광과 호남의 정취를 보고, 맛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뉴스 브리핑

전북도 산업디자인대전 전국 공모전 개최

전북도와 전북도 디자인협회(회장 양훈)가 전북도 산업디자인대전 전국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25회째를 맞는 공모전은 ▲시각 ▲포장 ▲산업공예 ▲제품·실내·환경 ▲텍스타일·패션 ▲멀티미디어 콘텐츠 등 6개

부문에 걸쳐 11월 18~19일 출품작을 접수한다. 출품작품은 조형성, 실용성, 창의성, 상품화 가능성, 양산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한 후 11월 21일에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063-280-3231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전주 나들가게 57개소 선정 골목상권 살리기

지역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청 주관의 '나들가게' 사업에 올해 전주시 점포 57개소가 선정됐다. 선정된 점포에는 신청에 의해 이뤄지는 경영혁신자금 외에 간판 정비 등 시설정비 비용으로 770만원이 기본 지원된다.

전북도 유재식 지역경제과장은 "선정된 나들가게들이 강화된 경쟁력이 지역상권 회복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도에는 더 많은 점포가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김용철기자 k0765@

군산시 신규 공중보건의 13명 배치

군산시가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를 제공할 신규 공중보건의사 13명을 배치했다. 시는 25일 공중보건의사 13명의 근무지를 지정하고 근무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시민의 의료 균점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각자 맡은바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군산시에는 ▲의사 19명 ▲치과의 6명 ▲한의사 7명 등 총 32명이 시민들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식기자 nogusu@

정읍시 보육시설·사립유치원에 친환경쌀 지원

정읍시는 5월 1일부터 보육시설과 사립유치원에 친환경쌀 35t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모두 117개소 2784명의 원아들이 친환경으로 재배된 쌀로 지은 밥을 먹을 수 있게 됐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친환경쌀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읍시는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총력을 쏟을 방침이다. /전북취재본부=빅기습기자 parkks@